

2008년 시행 예정 근로소득보전세제 '윤곽'

수급대상자 96만가구 168만명

일용직 등 380만명 소득 면밀조사
최저생계비 고려 공제액 차액 보전

정부가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대상자와 세부 추진일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근로자 현황파악 급선무

특히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하려면 우선 단 하루라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국세청에 따르면 EITC 추진을 위해

신규로 소득을 파악해야 할 대상인원은 380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규모의 실상과 고용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후 국세청은 신규 소득과 과과 대상자의 연간소득을 자료로 축적하기 위해 380만명의 소득·재산·소비 등을 축적할 '통합전산망'을 늦어도 10월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전산망에는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일용직 근로자 과세자료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고용자료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보유자료 ▲4대 보험통합자료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이러 국세청은 통합전산망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 11월말까지 EITC 수급대상자의 범위, 소요예산, 지급조건 등을 확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벌인 뒤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인력확보 시급

국세청 조직개편은 EITC 수급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선 일용직 근로자 등 '신규 소득과 과 대상자'들의 임금·고용실태를 매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이 불가피하다.

특히 1개 세무서가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현행 '대(大)세무서' 체제로는 EITC 수급 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세청의 판단이다.



다구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초대형 유조선(VLCC), LNG선(액화천연가스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선박 수주를 독식하고 있으며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 한진중공업은 중형 PC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세계 조선소 순위
한국 1~7위 '독식'

한국이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평가한 세계 조선소 순위에서 사상 최초로 1위부터 7위까지 독식해 명실공히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았다.

10일 조선·해운 시장 전문분석 기관인 영국의 클락슨(Clarkson)에 따르면 올해 2월말까지 각각 조선소 수주잔량은 현대중공업이 1천82만CGT로 여유있게 세계 1위를 질주했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782만CGT와 744만CGT로 2,3위를 기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393만CGT)과 현대삼호중공업(327만CGT)도 4, 5위에 포진해 세계 5강 대열을 형성했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부동의 6위 자리를 지켰던 '일본의 자존심' 미쓰비시중공업이 수주잔량 209만CGT로 주춤해진 사이 STX조선(213만CGT)과 한진중공업(210만CGT)이 6위와 7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앞지르기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STX조선과 한진중공업은 지난 1월 수주잔량이 각각 210만CGT로 세계 7위권을 형성하며 미쓰비시중공업(223만CGT·6위)에 근소한 차이로 뒤졌지만 2월 들어 공격적인 수주에 나서 감격적인 뒤집기에 성공했다.

STX조선은 지난 2월 러시아의 프리모프스카로부터 5만1천DWT급 중형 PC선(석유화학제품운반선) 5척을 2억7천만달러에 계약하는 수주 대박 행진을 벌였으며, 한진중공업 또한 중형급 컨테이너선 수주를 통해 빅7에 진입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 2월말까지 전세계 전체 수주잔량이 1억734만CGT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7개 업체가 무려 세계 시장의 35%나 점유한 셈이다. 수주 잔량은 건조되고 남은 일감으로 세계 조선업체의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잣대로 통용되고 있어, 한국 조선업체들이 1위부터 7위까지 싸늘이했다는 것은 세계 조선업을 완전히 제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구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초대형 유조선(VLCC), LNG선(액화천연가스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선박 수주를 독식하고 있으며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 한진중공업은 중형 PC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인스 워드 장학재단에 기금

기아차, 국내외 기업 중 처음

기아차는 방한중인 미국 프로풋볼리그(NFL)의 하인스 워드 선수가 혼혈인들과 재미 한인교포들을 위해 설립할 예정인 장학재단에 국내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기금을 전달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서울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워드 선수와 조남홍 기아차 사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인스 워드 장학재단 설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기아차는 워드 선수가 방한기간 의전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러스 3.8 프리미엄 차량을 경매로 판매해 낙찰금 전액을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워드 선수는 이날 "평소 혼혈인들과 재미 한인교포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재단 설립을 위해 기아차에서 기금을 마련해줘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기아차는 전했다.

기아차는 또 조지아주에 공장 건설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워드 선수가 '조지아주는 어머니와 나의' '제2의 고향'이며, 조지아주의 발전을 위해 기아차 큰 역할을 해줘서 고맙습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매로 판매될 오피러스에는 워드 선수가 의전차량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필 서명과 감사의 메시지가 담긴 증서를 함께 제공하며, 경매는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FTA' 수출 경쟁력 제고 의문

KIEP의 방호경 연구원 분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관세인하가 수출 상품의 시장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국제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나왔다.

KIEP의 방호경 연구원은 10일 '최근 미국시장에서 한·중·일 3국과 FTA 체결국의 관세율 및 수출성과'라는 보고서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최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 품목이 줄고 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삼성생명 대표 이수창씨 내정

삼성그룹은 10일 삼성생명 대표이사에게 이수창 삼성화재 사장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게 삼성투신 황태선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엔 또 삼성생명 배정중 사장을 부회장 승진과 함께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삼성투신 대표이사 사장은 삼성전자의 강제영 부사장을 내정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기업·자영업자 소득증가율
작년 사상 최저치 기록

0.5% 증가에 그쳐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수익능력을 나타내는 국민계정상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지난해 사상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환율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채산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자치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경기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명목 영업이익은 총 238조18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236조7천693억원)에 비해 0.5% 늘어나는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는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7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98년의 증가율

1.25%에도 못미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9%였다 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로써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도 지난 2004년 30.4%에서 지난해에는 29.5%로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제조업, 건설업,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의 총수익에서 원자재와 중간재 등 중간투입물과 인건비, 고정자산 소모부 등을 제외한 산출하는데, 일반기업으로 치면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기업에 중심으로 채산성이 크게 떨어져 증가율이 사실상 '제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종이 꽃' 전시회

10일 롯데백화점 동래점에서 '크리스탈 플라워'로 불리는 '종이 꽃'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특수 종이로 만든 들국화, 물란초, 아이리스, 은방울 꽃 등 향기는 없지만 생화와 똑같이 만든 30여종의 다양한 '종이 꽃'이 선보인다./연합뉴스

국내외 금융업체 10여곳

'LG카드 인수전'에 관심

LG카드 인수전에 국내외 금융업체 10여곳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LG카드 채권단 관계자는 10일 "오는 12일 인수의향서 접수를 앞두고 지금까지 약 10개 금융업체가 의향서 양식을 받아갔다"며 "대부분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업체들"이라고 밝혔다.

양식을 받아간 업체 가운데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 메릴린치, 테마콜, 씨티그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난색으로 LG카드 인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우리금융지주도 매각

공동주간사인 산업은행 M&A실 및 JP모건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카드 최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인수의향서를 내는 업체는 이 가운데 일부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채권단으로 환원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각 주간사들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인수의향서와 비밀유지약속서 등을 제출받은 뒤 입찰적격자를 선정해 예비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매각협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공과대학원	정규직 사무행정 여사무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4/11	062-369-0790
인포드림넷	하노르텔레콤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사원(남/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12	062-236-0217
호텔 프라도	각부별별 정규사원(객실서비스/음료)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3	062-654-6600
케이시스	정규직 영업사원/ TM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13	062-236-1682
한국현대디스플레이	정규직 기술영업인원 경력직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4/14	062-953-1771
(유)종도건설	[건축/토목분야]인사 및 경력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911-1135
광주광역시정보센터	프로그래머 및 웹디자이너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5	062-222-8564
포토양주	포토샵작업 여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4/17	062-222-0948
씨큐어넷	[주5일근무]SK텔레콤 서부지사 CRM센터 고객센터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4/17	062-364-7955
한국씨티은행	[광주]정규직 영업인사(여)인 전문 영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7	062-382-2815
정원교육문화	[광주]정규직 회원관리/경영컨설팅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4/20	051-465-5500
(재)광주정보보호산업진흥원	국비지원 취업연수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2	062-350-243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주요사업은 鄭회장이 최종 결정'

현대차 경영시스템 변화 불가피

검찰이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향후 정 회장의 위상과 그룹의 경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 회장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 가운데 몇몇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경영인이 결정을 내리고 오너는 최후에 승인만 하는 경영 시스템으로 전환했지만 현대차 그룹은 지금까지 정 회장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로 운영돼 왔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기획총괄, 국내외 판매 및 기획, 품질 및 생산·기술, 연구·개발, 재경, 구매, 해외사업 등 부문별로 담당 부회장이나 사장, 부사장을 두는 조직체계다.

또 현대제철이나 현대모비스 등의 계열사들은 외형적으로는 회사별로 사장이나 부회장이 경영을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집행 등 일상적인 경영은 이들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지만 부문이나 계열사별 신공장 건설이나 신차 프로젝트, 신기술 개발 등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주요 사업은 정 회장이 최종적으로 결

정하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경영 시스템이다.

<'위기 자조?' 정 회장 위상 변화때는 파장>= 그동안 현대차그룹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경영 시스템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 이후에는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안팎에서는 당장 이같은 경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검찰의 이번 수사로 인해 정 회장의 위상이 변화가 있을 경우 그룹 경영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경우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룹 회장직 유고로까지 이어지면 부문별 담당이나 계열사별 경영인체제로 바뀐다하더라도 '책임과 권한'의 문제가 발생, 그룹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현대차그룹 안팎의 우려다.

/연합뉴스